

기업가 정신

혁신적 기업가 정신의 고취

- ▶ 한국에서, 기업가 정신의 역동성은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 주로 저생산성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영세업체들에 의해서 대체로 주도되고 있다.
- ▶ 청년과 여성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기업가적 활동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중요한 잠재적 재능과 기술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 한국은 기업가 정신을 고무하고 중소기업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을 시행했으나, 혁신적이며 성장 지향적인 창업기업(start-ups)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기업가적 문화를 좀 더 고취하고 시장에 기초한 자금조달 방안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무엇이 문제인가?

2006~13년 동안 한국의 창업률은 14%에서 18% 범위로서, OECD 평균인 11%보다 상당히 높았지만, 동 기간 동안에 꾸준히 감소하였다. 더구나, 기업가 정신의 역동성은 소매 및 식·음료 분야 같이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 주로 저생산성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영세업체들에 의해서 대체로 주도되고 있다. 이것은 대기업들과의 생산성 격차를 크게 하고 이를 계속 확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1988년에 대기업의 53.8%에서 2014년에는 단지 30.5% 까지 하락하였다. 2012년도 도·소매업 부문에서 노동생산성 격차는 OECD에서 가장 높았다(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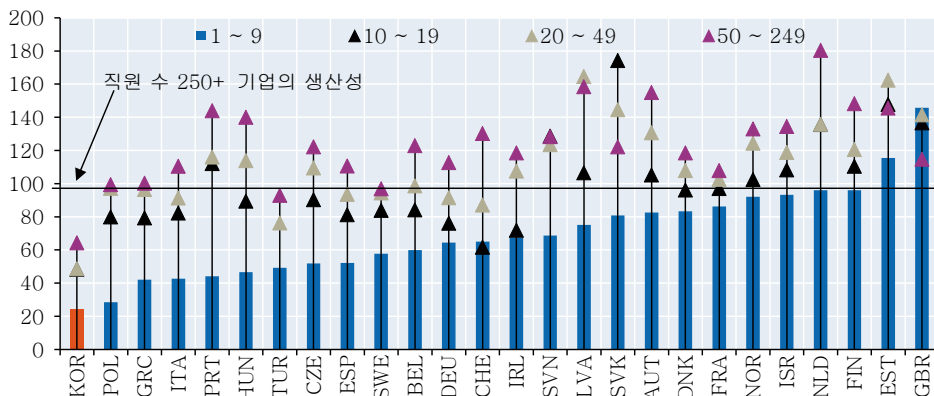
한국은 발전 지향형 기회 추구 기업가 정신(즉, 독립 추구 또는 소득 증가를 목적으로 한 기업가 정신)이 2012년 46%에서 2015년 62%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지향형 기업가 정신(즉, 달리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선택한 기업가 정신)이 2015년 전체 초기 기업가의

24.4%로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아울러, 2013년 한국 산업 부문에서 고성장 기업은 직원 수 10명 이상 업체들 중 4%를 접하여, 영국(13%), 독일(10%) 및 프랑스(8%)를 포함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 낮았다.

규제 및 문화 장벽은 발전 지향형 기업가 정신을 제한하고 있다. 상품시장 규제는 OECD 지역에서 가장 엄격한 편에 속한다. 창업할 기회를 인지하고 창업하는 능력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비교적 높다. 한국에서 직업 진로로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가진 비율이 노동 연령 성인의 40% 미만인 것과 달리, 인도네시아나 필리핀과 같은 동일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은 약 4분의 3이나 된다. 또한, 한국에서는 청년, 그리고 특히 여성이 기업가가 될 가능성은 대다수의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적다.

한국의서비스 부문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생산성이 훨씬 낮다

각국에서 2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도·소매업 회사에 종사하는 직원 1인당 부가가치 = 100, 2012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신 자료



주: 도·소매업은 자동차, 오토바이 수리업을 포함. 한국의 경우, 규모 등급 "50~249"는 "50~299"에 해당하며 규모 등급 "250+"는 "300+"에 해당함. 비교 데이터는 일부 서비스 하위 부문에 대한 것만 이용 가능함. 따라서 이 그림은 단지 한국의 서비스 산업을 더 폭넓게 보여주기 위한 것임.
출처: OECD (2015),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5 (2015년, 한눈에 보는 기업가 정신), OECD 출판.

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기업가 정신 및 중소기업 확장에 중요한 장애물에 해당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정부 지원은 상당하였으며 전통적 부채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은행 용자는 흔히 고위험-고수익 가능성이 높은 신생기업, 혁신기업 및 고성장 기업에는 부적절하다. 많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은행 용자가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장기 투자를 촉진하고 혁신적인 기업들의 진입과 성장을 용이하게 하려면 더 다양한 옵션들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3 창조 경제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기업가 정신을 고무하고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규제 개혁과 경쟁력 제고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신생 혁신기업의 보조금 대출 및 정부 투자를 위한 지분자본 조달 및 예산을 개발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지분자본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창업자금 조달에는 제한이 있다. 2015년 벤처 캐피탈 투자의 68.9%는 설립된 지 3년 이상인 업체들에 투자되었으며, 26.7%는 설립된 지 7년 이상인 업체들에 투자되었다. 또한, 정부의 큰 역할은 개인 투자자들을 구축할 위험이 있다. 2015년에는 정부 투자가 벤처 캐피탈 자금의 30.3%를 차지했다. 정부가 창업기업들 간 인수합병(M&A)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 인센티브와 대기업 신규 벤처기업 M&A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제약요인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지분 투자 확대는 M&A 시장 저개발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는 부정적인 문화적 인식을 극복하고 기업가의 역량과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2009년에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1년에는 “청년 기업가 창업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2015년에는 혁신적 청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3천억원(GDP의 0.02%) 규모의 청년개발기금의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뿐 아니라, 정부는 투자 및 채무 조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파산 중인 기업가들을 위한 재기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 자산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가 정신의 주요한 장애물들을 해소하는 것이지만, 대중 속에 기업가 문화를 더욱 함양하고 특히 청년과 여성들 사이에서 미처 발휘되지 못 한 혁신 지향적인 기업가 정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보다 더 추가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한국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2013년 한국에서 중소기업은 기업의 99.9%에 상당하였으며 한국 내 고용의 86.8%를 담당하였지만, 2011~14년 동안에 소규모 기업들 중 단지 0.01%만이 중규모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중소기업 부문에 성장의 역동성이 없다는 것은 대체로 창업 프로젝트들의 혁신성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반영한다. 한국이 소기업 부문의 생산성 수준을 높이고, 중견 대기업들이 도외시하는 기술적 또는 상업적 기회들을 이용하며, 장애에 도전하고, 경쟁을 자극하며, 고임금 고용을 창출하려면 혁신적 기업가 정신을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혁신 지향적인 기업가적 기회는 경제적 및 사회적 참여와 발전을 위한, 그리고 현재 개발되고 있지 않은 역량과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채널이 될 수 있다.

정책입안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 멘토링과 코칭은 물론 기업가 정신 및 금융 교육을, 특히 여성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
- ▶ 청렴한 기업가들을 위해서는 재기의 기회를 도모해 주는 파산 및 압류 절차를 시행한다.
- ▶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정책을 추구하며, 특히 시장에 기초한 자금조달을 촉진하고, 민간 자원을 활용하며, 민간 부문과 위험을 적절히 분담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함으로써 그러한 정책을 추구한다.
- ▶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에서 조기 신규시장(IPO)을 도모함으로써 벤처 자본이 창업 기업들에게 집중되도록 한다.
- ▶ 규제개혁을 통해 M&A 시장을 소생시킬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 ▶ 진입 규제를,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완화한다.



추가 참고 자료

G20/OECD (2015), *High-Level Principles on SME Financing*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관한 고위급 원칙). <https://www.oecd.org/finance/G20-OECD-High-Level-%20Principles-on-SME-Financing.pdf>

OECD (2016), *OECD Economic Surveys (OECD 경제 보고서)*. 한국, OECD 출판. <http://www.oecd.org/eco/surveys/economic-survey-korea-korean.htm>

OECD (2017), *Financing SMEs and Entrepreneurs 2017: An OECD Scoreboard (2017 중소기업과 기업가의 자금조달: OECD 스코어보드)*, OECD 출판.